2000년 전 남인도 불교미술 정수를 만나다

국립중앙博 '스투파의 숲' 전시
오는 4월 14일까지 기획전시실
인도 불교미술품 97점 등 선봬
남인도 문화재 한국 소개 '최초'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는 스투파 장식 장엄물 '싯다르타, 머리카락을 자르다'의 모습. 3세기 말 조성됐다.

스투파(Stūpa)는 불교에서 부처나 훌륭한 스님의 사리를 안치하는 조형물이다. 솔도파(率堵婆)의 약칭인 탑파, 탑은 모두 스투파에서 유래한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당시 제자들과 신도들은 불사리(佛舍利)를 8등분하고 8개의 불탑을 만들어 봉안했다. 아소카왕 때 이 불사리를 재발굴해 8만4000개의 탑에 분납했고, 이것이 불교도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에도 많은 스투파가 건립됐고, 이는 불교의 대표적 예배와 신앙의 대상이 됐다.

탑파 신앙은 불교의 전래와도 관련이 있다. 남인도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기원전 3세기 중엽으로 당시엔 아소카왕이 인도 전역에 부처님의 사리를 보내 스투파를 조성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조성된 스투파와 불교 관련 유산들은 불교가 어떻게 전래·정착됐는지를 알게 하는 자료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세워진 남인도 스투파와 불교미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오는 4월 14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이야기' 특별전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남인도 고유의 문화와 불교가 만나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남인도 미술 세계를 알 수 있는 문화유산 200여 점이 전시된다. 남인도 불교문화유산이 한국에 소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별전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지난해 7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개최한 '나무와 뱀:인도의 초기 불교미술'의 한국 전시다. 해당 전시에는 인도 데칸고원 동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남인도 미술이 소개되며 뉴델리국립박물관 등 인도 12개 기관, 영국, 독일, 미국 등 4개국 18개 기관의 소장품이 출품됐다. 이 중에는 발굴된 후 한 번도 인도 밖으로 나간 적 없던 유물이 대거 포함돼 있다.

생명력 가득한 남인도 미술 세계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한국의 특별전은 두 가지 숲으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는 '신비의 숲'이다.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 뿌리내린 남인도 고유의 문화에 불교가 스며들면서 이색적인 숲이 탄생한다. 인도인들은 숲 속의 정령이 풍요를 가져와 준다고 믿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무와 대지에 깃든 신을 남성형은 약샤, 여성형은 약시라 불렀다. 자연의 정령이던 이들은 불교가 전해지면서 스투파 장식의 조각으로 등장한다. 자연의 정령과 불교의 신들이 어울려 살아가던 생명의 숲을 표현하기 위해 첫 번째 전시실에서는 스투파의 봉분을 형상화한 둥근 원들로 순환의 질서를 형상화한 공간을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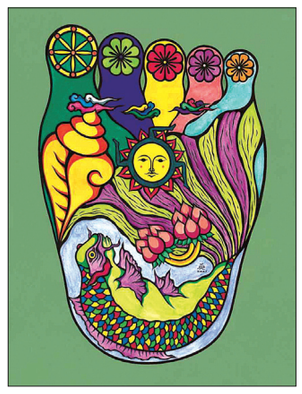
두 번째는 '이야기의 숲'이다. 북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는 남인도 특유의 생명력 넘치는 문화와 만나 북쪽과 달리 활기찬 분위기로 바뀐다. 무엇보다 석가모니의 이야기가 그려진 남인도 스투파의 규모에서 뿜어져 나오는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획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양한 상징과 서사로 이루어진 그의 인생 드라마가 돌 표면에 조각되어 드라마틱한 인도 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류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였던 인도에서 일어난 문화의 흐름과 불교 신앙의 전파가 남인도 고유의 미술에 어떤 자극과 상상력을 제공했는지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시방세계 부처님, '현대적 민화' 재현하다

갤러리 한옥, 오혜재 기획전



오혜재 작가의 작품 '불족적'

현대적으로 해석된 민화로 재현된 부처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미술사연구소 부설 갤러리 한옥은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오혜재 작가의 기획전시 '걸었던 자리마다 별이 빛나다'를 개최한다.

지난해 '제3회 갤러리 한옥 불화·민화 공모전'에서 입상한 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적 불교 민화 20여 점을 선보인다.

오 작가는 "숫자 '10'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전함'을 상징하며, 특히 불교에서 '10'은 '무한과 자유, 구원, 완전'을 의미한다"면서 "이번 전시는 갤러리 한옥 공모전 입상자로서 거머쥔 기회이자 '독학 예술가'로 활동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에 마련한 뜻깊은 자리"라며 "지난 10년간 예술가로서 걸었던 자리마다 빛을 밝혀준 나의 별들을 조명하면서, 앞으로의 10년 동안 보다 원숙한 예술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이번 전시가 귀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스스로를 '독학예술가'로 칭하는 오 작가는 이화여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2014년부터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왔다. 2019년 홍콩 아시아 컨템퍼러리 아트쇼를 통해 해외에도 작품을 선보이면서, 국내외 다양한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싱가포르 아시아예술협회(AAA) 주최 '코로나19 국제 자선 그림 공모전'에서 아티스트 부문 금상을 수상했고, 2021년 이탈리아 현대작가센터(COCA) 주최 '제3회 COCA 국제 공모전' 1차 선정 작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에는 〈제3회 갤러리 한옥 불화·민화 공모전〉 특선 수상, 독일 기후예술컬렉션(CAC) 선정 작가, 홍콩 〈아웃사이더 아트 VR 전시회〉 2등상 수상을 달성했다.

신중일 기자

동체대비, 불교 공동체에 어떻게 구현되나

금강대 불문연, 1월 12일 제3회 온라인 학술세미나

동체대비 정신이 불교 공동체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고승학, 이하 불문연)은 1월 12일 오전 9시 30분 금강대 국제회의실에서 '동체대비와 불교 공동체'를 주제로 제3회 온라인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병욱 고려대 강사가 '천태종의 불교공동체 정신에 대한 재검토-삼대강령과 삼대지표를 중심으로'를, 지혜경 연세대 철학연구소 연구원이 '현대 한국 불교의 대중화 운동- 상월조사와 광덕스님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아리조나 대학의 알버트 웰터(Albert Welter)는 '세속화 시대의 불교: 동아시아적 관점'을, 도미닉 스카란젤로(입정교성회)는 '〈법화경〉의 일승과 종교 간 대화에 관한 입정교성회의 이해: 종교적 포용주의의 모호성과 21세기 종교적 다원주의에 대한 전망'을 각각 발제한다.

발표자료는 사전에 배포되며, 1월 3일부터 9일까지 메일을 통해 사전 질문을 접수 받는다. 자료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한 후, 공유폴더에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다.

금강대 불문연은 동아시아 불교의 시대정신을 천태종의 3대 지표인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와 관련해 논구하는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를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해 왔다. 2021년 12월에는 '동아시아 불교도들의 시대인식'을 주제로 2023년 2월에는 '삶의 형식으로서 불교'를 주제로 각각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화엄사 사경행자들 수행 결실 '한자리에'

화엄사 사경원, 제2회 회원전…2월 25일까지 화엄사성보博서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제2회 화엄사전통사경원(원장 김경호) 회원전 '화엄동천경필사(華嚴洞千經筆師)'를 2월 25일까지 화엄사 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1월 6일 개막한 이번 전시회는 화엄사 전통사경원의 두 번째 회원 전시회로, 전통사경원에서 지도받은 회원 40명이 참여해 50여 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회에 앞서 주지 덕문 스님은 "화엄사 전통사경원이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이신 김경호 선생을 모시고 1300년 전통사경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화엄도량에 사경원을 개원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신라백지묵서화엄경의 맥을 계승한 경필사들을 많이 배출하게 된 것은 사경행자들의 견실한 초발심과 김경호 선생의 훌륭하신 지도편달이 어우러진 인연공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회에는 전통사경의 대중화를 위한 결실이 맺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기대했다.

전시회는 김경호 원장(사경장)의 연구반과 조미영 박사가 지도하는 기초반, 그리고 경기도 의왕 용화사분원의 박경빈 선생이 지도하는 회원들의 작품들이다.

김경호 사경장은 축사를 통해 "사경은 기본적으로 불교의 삼보 중 하나인 법보(法寶), 즉 불교 경전을 제작하고 장엄하는 일이다"며 "성인의 말씀을 문자로 옮긴 경전은 신앙의 대상이다. 그래서 최상의 재료와 도구를 개발하여 장엄하게 되고, 가장 여법한 형식과 양식 및 기법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신성한 예술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이산 현문
이 사 : 상우, 운성, 산옹, 법진
명신, 정우, 재원
동진, 오심, 동주
만초, 항조, 수진행
감 사 : 영산, 도광록세무사.
사무국장 : 홍성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77번지
전화 055)372-3722 팩스 055)372-3723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지 성 주
사부대중 일동
